



서울-수원 '슈퍼매치' 아닌 '슬퍼매치'?

내일 K리그1 9위 FC서울-10위 수원삼성 첫 결전 K리그2 서울E-수원FC 격돌... 골잡이 대결 관심

'슈퍼매치'라 불리며 한국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로 자리매김한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대결. 그러나 이번 주말 슈퍼매치라 부르기엔 다소 어색한 역대 90번째 슈퍼매치가 열린다.

수원과 서울은 4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올 시즌 처음이자 K리그 통산 90번째 두 팀의 격돌이다.

K리그 최대 팬덤을 자랑하는 두 팀의 경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슈퍼매치'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올해는 두 팀의 대결에 수

퍼매치라는 말을 들이대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원과 서울은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 두 팀의 격돌은 이제 슈퍼매치가 아니라 '슬퍼매치'라 불려야 한다는 팬들도 있을 정도다.

9라운드까지 서울은 3승 6패(승점 9)로 12개 팀 중 9위, 수원은 2승 2무 5패(승점 8)로 10위에 처져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두 팀이 나란히 시즌 막판 파이널B(하위 스플릿)에 머물면서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서울은 올 시즌 6득점 18실점을 기록 중이다. 팀 득점은 2무 7패로 올 시즌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꼴찌 팀

인천(3득점)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 째고, 실점은 가장 많다. 공·수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수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년째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수원은 지난해 파이널B로 떨어져 최 종순위 8위로 시즌을 마쳤다.

수원은 최근 2연패를 당하는 등 5 경기에서 1승 1무 3패의 성적을 냈다. 지난해 20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타 가트가 올 시즌 1골로 침묵하고 있는 데다 팀 전체적으로 득속날쭉한 경기 력으로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올산 현대로 이적한 왼쪽 풀백 홍철의 빈 자리도 메워야 한다. 서울과 수원의 추락으로 K리그1의 슈퍼매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같은 날 K리그2(2부)에서 펼쳐질 서울, 수원 연

고 팀 간 대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수원FC가 K리그2 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김도균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는 승점 15(5승 3패)로 선두를 달리고, 이랜드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사령탑인 정영웅 감독의 지휘 아래 승점 12(3승 3무 2패)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수원FC는 이번 이랜드전을 대비해 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FA)컵 3라운드 K리그1인천과 경기에서 2군으로 팀을 꾸리고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16강에 올라 자신감이 더 붙었다.

7골(3도움)로 득점 선두인 수원 FC 안병준과 4골(2도움)을 기록 중인 이랜드 레안드로 간의 골잡이 대결도 관심을 끈다.



“우즈를 무너뜨렸던 관록을 보여줄게” 2일 경남 창원시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린 2020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첫날 양용은이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정조국이 연장 후반 11분 역전골을 터뜨려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Utd 짜릿한 역전승... 16강 진출 2020 FA컵 서울 이랜드와 연장접전 끝 3-2 승리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FA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제주는 지난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2020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24강전) 홈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제주는 김진환과 원기종에게 연속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시간 임동혁과 공민현의 연속골로 극적인 동점을 만든 데 이어 연장 후반 11분 정조국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승리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쥔 제주는 안방에서 7월 15일(시간미정) 수원 삼성과 8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의 주인공은 원정팀 서울이랜드였다. 전반 16분 아르시치의 코너킥을 윤보상 골키퍼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자 흘러나온 볼을 김진환이 마무리하며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반격에 나선 제주는 전반 19분 에델이 감각적인 왼발 터닝슛을 선보였지만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에델은 전반 31분에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지만 강정목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제주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킨디션이 좋은 에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슈팅과 세트피스 찬스가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하지

만 몇차례 있었던 골 찬스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제주의 공격이 거세지자 서울이랜드는 후반 11분 문상운 대신 장운호를 교체 투입하며 수비 안정을 꾀했다.

제주의 화력을 잘 막아낸 서울이랜드는 후반 28분 앞서 교체 투입됐던 원기종이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뜨렸다.

패색이 짙었지만 제주는 후반 47분 임동혁이 추격골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 종료 직전 공민현이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제주는 연장 후반 11분 정조국의 역전골로 이날 경기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편 제주는 2일 강원FC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 김오규(31)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송은범기자

'4경기 2득점' SK, 22년만에 팀 타율 0.230대 기록하나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팀 타율 0.240 이하를 기록한 팀은 1997년을 끝으로 22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올 시즌 21세기 최초로 팀 타율 0.230대를 찍은 SK 와이번스가 보인다. SK 와이번스다.

SK는 1일까지 올 시즌 49경기에서 팀 타율 0.237을 기록 중이다. 1위 두산 베어스(0.298)보다 6푼 이상 낮고,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세웠던 9위 한화 이글스(0.243)보다도 낮다.

최근 페이스를 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 SK는 지난달 27일 LG 트윈스전부터 최근 4경기에서 총 2득점에 그쳤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0.5점이다. 그나마 2점은 솔로홈런 2개로 만들었다.

SK 타선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인구 반발력을 낮춘 지난 시즌부터 말뚝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력이 떨어진 여름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탔다.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다. 다른 구단들은 지난 시즌 학습효과를 발판으로 많은 준비를 하며 공인구 문제를 스스로 탈피하고 있다.

그러나 SK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팀 타율은 지난 시즌(0.262)보다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최근엔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김경호, 최지훈 등 젊은 선수들까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후끈'

첼시·레스터 나란히 패배 5·6위와 승점 차이 좁혀져 순위 역전 허용 가능성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3위 레스터시티와 4위 첼시가 나란히 5·6위 팀들의 추격권으로 내려앉았다.

첼시는 2일(한국시간) 영국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EPL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2-3으로 역전패했다.

승점을 쌓지 못한 첼시(승점 54)는 전날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을 잡은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6위 울버햄프턴(이상 승점 52)과 격차가 승점 2로 좁혀져 순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을 키웠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려면 4위 안에 들어야 안전하다.

2위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UEFA로부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으면서 현재로서는 맨시티를 제외한 EPL 1~5위 팀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준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한 맨시티의 항소 결과에 따라 예년처럼 1~4위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첼시뿐 아니라 3위 레스터시티도 위태로워졌다.

레스터시티는 이날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배해 승점을 쌓지 못했다.

승점 55인 레스터시티 역시 맨유, 울버햄프턴과 격차가 3점에 불과해 남은 6경기에서 한두 경기만 빼놓으면 4위 밖으로 처질 위험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레스터시티는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다 재개한 뒤 정규리그 3경기(2무 1패),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전적까지 더하면 4경기(2무 2패)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
변시지·강승희·채기선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

2020. 4. 18 SAT - 7. 17 FRI





Gallery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관람시간안내 평일 11:00-18:00 주말(土,日) 11: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변시지 / 강승희 / 채기선 초대전